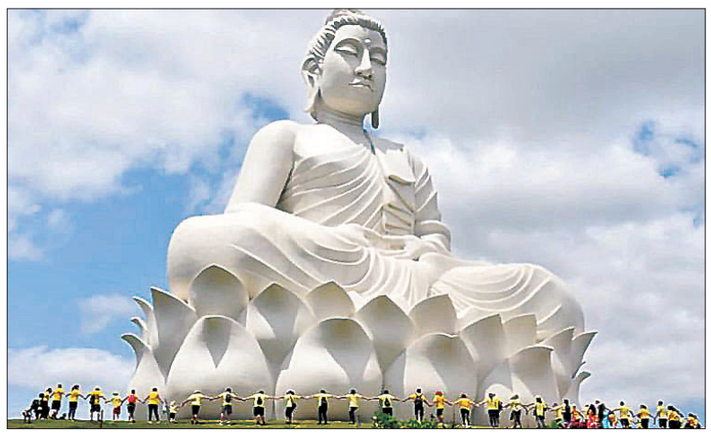
브라질 대불, 종교간 화합 상징으로

지난 8월 완공, 브라질 출신 스님 발원

日사찰 · 기업 보시로 건립
온라인점안, 기념식진행도
지역랜드마크로 기대 모아

박영빈 객원기자



35m높이 서구권 최대의 대불로 건립된 브라질 이비라스 대불. 사진출처=바이글로브 뉴스

전통적으로 가톨릭이 강세인 남미 브라질에 35m의 거대한 대불이 조성됐다. 지난 8월 완공되어 점안식을 마친 대불은 흰색의 선정에 든 부처님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이고 있다. 10월 11일 일본의 '바이글로브 뉴스'는 브라질 출신 스님이 조성한 대불과 브라질 불교에 대해 보도했다.

브라질 남동부 이스피리투산투주(州)의 이비라스시에 조성된 대불은, 해당 도시에 소재한 조동종 소속의 젠코지(禪光寺) 경내부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2018년 조성을 시작해 2년에 걸쳐 회향됐다. 불상의 높이는 좌대를 포함하여 35m. 브라질의 상징으로 불리는 '리우의 예수상'(30m)보다 큰 크기로 서구권에 조성된 불상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주일 브라질 대사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브라질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겼다"며 환영했다.

대불 조성에 대해 엔도 스님은 "지역 부흥과 불교의 홍보를 위해"라고 밝혔다. 불상은 브라질 국내의 모 기업과 일본사찰들의 보시를 통해 2020년 10월에 완공됐다. 코로나19의 격화로 인해 점안식 등이 미뤄져 왔으나, 지난 8월 28일 온라인으로 점안식과 완공기념식을 봉행했다. 온라인을 통해 점안을 증명한 일본 조동종 관장 미나미자와 도닌 스님은 "대불이 점안을 통해 브라질에 기쁨의 기운이 넘치길 바란다"고 법어를 내렸다.

엔도 스님은 "이비라스 시는 인구가 1만 2천 명에 불구하고, 경제적 기반시설과 일자리가 부족한 작은 시골"이라며 대불을 하나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실제 대불의 관람료는 무료이며 완공 이후 월간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관광이나 수행을 위해 젠코지를 방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변에 식당과 카페, 기념품점이 생기면서 도시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불을 조성한 젠코지는 1974년에 처음 이비라스시에 '이비라스 붓신지(佛心寺)'라는 이름으로 건립됐다. 이후 젠코지로 개명한 후 조동종을 포교하는 사찰로 운영됐다. 이탈리아계 이주민으로 젠코지의 부주지를 맡고 있는 알베르토 엔도 스님은 "처음 사찰이 세워졌을 땐, 일본계 이주민이 적고 가톨릭이 열성적인 시골마을이었다"고 회상했다. 스님은 "일본계를 비롯해 아시아계 이주민이 적은 지역으로서 불교는 지역에 큰 위화감이 있는 종교였다. 심지어 지역주민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 스님을 가리키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렇게 머리를 밀고 귀신같이 된다'며 악의를 숨기지 않았다"고 초창기 포교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럼에도 이비라스시에 도량을 세운 이유는 "장기적으로 브라질에서 자체적으로 출가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승당(僧堂)을 건립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고 밝혔다. 이후 젠코지는 지역 봉사활동과 함께 150ha에 달하는 경내부지에 2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환경복원을 이루는 등 지역공헌으로 불교에 대한 이미지도 쇄신했다. 또한 경내에 도예학교와 환경학교를 세워 지역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적 소득도 함께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젠코지 측이 대불 건립을 발표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반대의 견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엔도 스님과 젠코지의 대중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불의 공개가 늦어지고 더 많은 분들의 방문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삶의 진리를 전하는 데에는 장애가 없다"며 "더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日사찰 "범종 주인 찾습니다"

2차대전 '공출 반납' 종, 출처 불분명

세계 2차 대전 당시 사찰에서 공출된 종의 출처를 찾기 위한 일본불교계 노력이 화제다. 10월 11일 일본의 '오이타 합동신문'은 오이타 호넨지(法然寺)의 종 이야기를 전했다.

오이타(大分)시에 소재한 호넨지는 정토종 사찰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종각의 범종과 법당안의 소종을 공출당했다. 전쟁 후 소종 만을 돌려받았으나 20여 년 전, 소종이 호넨지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호넨지의 주지 탄바 잇쇼 스님은 "20년 전, 한 주민이 다른 시의 화재감시탑에 걸린 종이 호넨지의 소종이라는 제보를 해왔다. 종에 새겨진 명문과 옛 사진 등을 통해 돌려받은 종이 실은 다른 사찰의 종인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잇쇼 스님은 사용 중이던 종의 명문을 다시 확인한 결과 '덴세이지(專歲寺)'라는 사명과 '사에키(佐伯)'라는 지명을 발견했다. 또한 함께 새겨진 명문에서 종의 조성시기가 1810년인 것도 밝혀냈다. 그러나 스님은 "명문 만으로는 사찰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주조양식은 이곳 오이타 지방의 주조법임은 확실하고, 사에키라는 지명이 근처 도시에 있기에 그 곳 어딘가 있는 사찰의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호넨지 측은 현과 시의 역사자료관과 도서관 등에 덴세이지라는 사찰을 찾아



공출에서 돌아왔으나 제자리를 찾지못한 범종과 잇쇼스님. 사진출처=오이타 합동신문

달라 의뢰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전쟁 직전에 조사된 사찰명부 등에도 해당 사찰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잇쇼 스님은 "전쟁을 전후로 폐사된 사찰도 많았다. 이미 공출이 된 당시엔 사라진 절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곳에 온 인연이 있으니, 관계가 있는 사찰이라도 발견되면 그곳으로 돌려보내고 싶다"며 계속해서 수소문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불구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공출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도구로 변하지 않고 본래의 역할을 지금껏 해준 데에서 전쟁과 평화를 함께 생각하게 하는 종"이라며 "언젠간 본래의 자리에서 종이 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泰, 스님들의 청년 맞춤형 온라인 설법 화제

은어와 농담 곁들인 법문
기성종단 측 반발도 강해



두 스님이 방콕의 한 사원에서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설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로이터 통신

젊은 세대들을 위한 스님들의 새로운 온라인 법문이 화제다. 10월 13일 로이터 통신은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은어와 농담으로 불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태국 스님들의 '청년 맞춤형 온라인 설법'을 보도했다.

파이완 와라완노 스님과 솜퐁 탈라푸토 스님은 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인 페이스북의 생중계 기능을 이용해 청년 맞춤형 온라인 설법을 시작했다. 청년 맞춤형 온라인 설법은 태국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은어와 농담으로 불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설법으로, 두 스님은 일약 소셜 미디어 스타로 유명해졌다.

파이완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젊은 세대가 공존하기를 바란다. 젊은이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서는 장차 불교는 어떤 종교가 될 것인가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적 삶에 대한 조언, 청년들에게 통하는 풍부한 유머를 섞으며 현대 태국 불교계의 문제인 살인, 마약, 성, 돈 세탁 등의 사찰 스캔들을 불교의 가르침과 함께 바라보는 설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한 야간통행금지의 장기화와 잦은 폐쇄조치로 우울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태국 청년들에게 온라인 설법은 새로운 안도감을 전하고 있다. 온라인 법문에 참여한 한 청년 불자는 "우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직장, 돈, 가족, 전염병, 그리고 폐쇄와 관련된 모든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매주 금요일 밤 두 스님의 유머가 넘치는 설법이 나의 하루를 밝혀준다"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한편,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온라인 설법은 불교계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달 두 스님은 국가종교위원회에 소환되어 불교계 고위인사들에게 '온라인 활동으로 승려로서 위의에 맞지 않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대표적인 불교계 보수단체인 헌법수호협회의 스리 수완잔야 회장은 "출가자는 대중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 태국 청년의 심신을 달래기 위해 출가자가 변화할 필요는 없다. 두 스님의 행보는 지난 2600여 년간 존재해온 불교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태국불자들은 두 스님의 행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불자는 온라인 댓글을 통해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구태의연한 의례가 생략돼 편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찰 방문의 어려움을 온라인 속 불자를 위한 공간을 개설하여 불법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시대는 변했다"고 말하며 온라인 설법을 지지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印, 4대성지 순례 열차 운행 재개

열차 재정비, 5성급 호텔 서비스



인도철도의 특별관광열차 '불교 4대성지 순례 열차'. 사진출처=인도 관광 진흥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인도 성지순례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월 13일 인도 언론 '인디아닷컴', '민트', '뉴스18' 등은 인도철도의 특별관광열차 '불교 4대성지 순례열차'의 운행재개 소식을 전했다.

12량 1편으로 구성된 불교 4대 성지 순례열차는 불교성지 뿐만 아니라 바라나시와 아그라 등 인도의 유명관광지들도 함께 돌아 볼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열차순례 상품은 2008년 인도 관광부와 철도부의 협업으로 첫 운행을 시작했으며, 특히 부처님의 탄생성지인 룸비니가 인도가 아닌 네팔에 있음에도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순례가 가능하게 하여 순례자들과 인도불교유적에 관심을 가진 여행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격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성지순례열차는 잠정 중단됐고, 이 기간 동안 인도 관광부와 철도부는 열차운행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했다. 그 결과 열차는 5성급 호텔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변모했다.

개편된 열차는 1등석 4량, 2등석 2량, 주방칸 1량, 식당칸 2량, 직원칸 1량, 동력차 2량으로 구성됐으며 전 차량에 에어컨이 설치됐다. 특히 1등석 4량 중 1량은 침대를 없애고 1인용 소파로 교체하여 파노라마로 경관을 즐길 수 있게 마련했다. 최신 주방장비와 예술품으로 꾸민 식당칸과 여행객의 편의를 위한 객실 내 욕실, 미니 도서관, 마사지 서비스 등 각종 편의 시설과 인테리어에 신경 썼으며, 특히 5성급 호텔의 전문 호텔리어로 이루어진 승무원들이 고객 서비스를 담당한다. 김민재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